출제 의도와 문제 해설(인문.사회계)

Ⅰ. 2008 학년도 정시 논술시험 출제의 기본방향

2008 학년도의 고려대학교 정시 논술시험은 모의시험과 수시 2 논술시험과 같은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이러한 출제유형은 2007 학년도 통합논술에 비하여 통합의 정도 및 난이도를 완화시킨 것이며, 고려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던 출제유형에 관한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의 논술출제본부는 이번 정시 논술시험에서 세 가지 측면에 특별한 비중을 두어서 논술문제를 출제하였다.

첫째, 고려대학교 논술시험의 목표로서 이미 공개된 바 있는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고등학교 내신성적 및 수능시험 성적에 대한 보정에 적합한 문제를 출제하였다.

둘째, 수험생들의 수준 및 응시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논술시험이 변별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문제와 마찬가지로 너무 쉬운 문제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평가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채점의 기준을 최대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아무리 그 자체로 좋은 문제라 하더라도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는 대입시험을 위한 문제로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2008 학년도 고려대학교 정시 논술시험 출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출제가 진행되었다.

①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i)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ii) 자신의 견해를 정해진 시간 안에 제한된 분량으로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iii) 주어진 자료 속의 정보와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창의적 능력을 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② 고교 내신 및 수능시험에 대한 보정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 즉, 고교 내신이나 수능에서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특히 통합교과형 논술로서의 실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교과목에서 각기 단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종합적 판단으로 유도하는 방식의 문제를 출제하고자 노력하였다.

③ 이를 위하여 출제팀 내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인문과학적 측면과 사회과학적 요소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출제의 소재와 방향, 제시문의 유형 등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문제를 출제하였다.

Ⅱ. 주제 및 제시문 해설

이번 고려대학교 정시 논술시험은 '신뢰의 유형과 역할'이라는 큰 주제로 묶일 수 있는 4개의 제시문을 선택하였다. 4개의 제시문은 각기 신뢰의 유형 및 발전경향에 관한 글, 불신사회의 문제점에 관한 글, 세상에 대한 불신을 소재의 하나로 삼고 있는 시,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신뢰유형에 관한 통계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라는 주제를 선택한 것은 이 주제에 관한 수험생들의 사전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려대학교 논술의 목표에 따라 수험생들의 제시문 독해능력, 표현능력 및 논리적 사고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출제자들이 수험생들의 답안에서 기대하는 것은 조금은 복잡한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논제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부합하는 내용을 주어진 분량 속에 적절하게 표현해내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각 제시문의 논지 및 그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제시문 (1)은 신뢰를 '두터운 신뢰', '얇은 신뢰', '추상적 신뢰'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신뢰에 상응하는 사회의 특성을 논한다.

두터운 신뢰는 부족이나 계급 혹은 인종에 있어 동질적인 사람들이 긴밀한 일상적 관계를 가질 때 형성되는 연대의 특징이다. 두터운 신뢰는 동질적이고 고립적이며 배타적인 소규모 사회에서 발견되며, 이런 사회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를 구속하는 규범이 존재한다.

얇은 신뢰는 현대의 대규모 사회를 통합하고 전국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해진 형태를 갖지 않는 느슨한 연대 관계와 관련된다. 현대 사회 속에서 자발적 결사는 서로 중첩된 연결망을 갖고 있는데, 이런 연결망을 통해 사회 전체의 여러 분파들 간에 연대가 형성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 간에 경쟁이 유지된다.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불확실해짐에 따라 사회의 통합과 유지를 위해 추상적 신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추상적 신뢰는 교육제도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형성된다. 교육은 시민들의 공통 지식을 제공하고, 협력의 기술을 훈련시키며, 사회생활과 관련된 추상적 개념들(시민권, 공정, 평등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대중매체도 정치적 지식, 능력, 소양 등의 수준을 향상하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

제시문 (1)은 Kenneth Newton 의 "Social Capital and Democracy"의 일부를 출제의도에 맞게 정리한 것이다.

제시문 (2)는 신뢰를 정의하고, 불신이 생겨나는 이유와 불신의 사회적 결과를 설명하고, 또 불신 사회의 특징을 묘사한다.

신뢰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신뢰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 불신을 선택한다. 신뢰가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에 불신은 그 타인을 보호하는 선택이 되기도 한다. 불신사회에서 개인들은 타인들과의 협동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남을 속여 경쟁에서 이기기를 기도하기도 한다. 이는 다시 불신을 정당화시킨다.

불신 사회의 특징은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이다. 불신 사회를 신뢰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결단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 왜냐하면 불신 사회에서 남을 믿는 것은 개인적으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신의 균형은 외부의 개입이나 공동체 여러 구성원들의 동시적인 노력이 없는 한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이다.

제시문 (2)는 Russell Hardin 의 책 Trust and Trustworthiness 와 Francis Fukuyama 의 책 Trust 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취하여 출제의도에 맞도록 다듬은 것이다.

제시문 (3)은 최승호의 시 [권투왕 마빈 해글러]이다. 이 시는 프로 권투 세계 챔피언인 마빈 해글러를 통해 불신으로 가득한 세계 속에서 자신만을 신뢰하며 사는 한 인간의 비극적 운명을 형상화하고 있다.

마빈 해글러에게 사각의 링은 불신의 세계로 인식된다. 그는 심판의 판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판은 매수되기 쉬워서 승부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정승을 기대하지 않는 그가 승리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를 때려 눕혀 케이오 승을 거두는 것이다. 사각의 링에서 그가 오직 믿는 것은 자신의 주먹뿐이다. 자신 이외에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는 무신론자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은 그가 무신론자보다는 순교자에 가깝다고 파악한다. 무신론자와 순교자는 전혀 상반된 존재들이다. 전자가 불신의 극단에 자리한다면 후자는 믿음의 극단에 자리한다. 시인이 보기에 마빈 해글러는 승리를 통해 세계의 불신을 증명하고 비판한다. 그가 거두는 승리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인이면서 세계가 불신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에 대한 역설적인 증명이라는 것이다. 불신의 세계에서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려 한다는 점에서 마빈 해글러는

순교자이다.

그의 싸움은 불신의 세계와 펼치는 대결일 뿐 아니라 불신을 넘어선 세계에 대한 소망을 함축한다. 이 시의 넷째 연 첫 행의 진술처럼 그 세계에서는 '서로 좋게 승리로 이끈다'. 시인은 마빈 해글러의 싸움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서로 믿는 세계에 대한 간절한 염원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진술에 이어지는 반어적 어조의 '얼마나 좋으랴'에서 드러나듯 그러한 세계는 실현 불가능하다. 유혈이 낭자한 방식으로 서로 믿는 세계를 희구하는 그의 싸움은 불란서 혁명처럼 숭고하지만 비극적이기도 하다. 불신의 세계 속에서 그는 끝내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는 죽음마저 이길 수는 없으며 그의 죽음은 그의 신념이 투우처럼 맹목적인 데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다. 그는 인간의 비극적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불신의 세계에 대한 극복은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제시문 (4)의 〈표 1〉은 일반적인 타자에 대한 신뢰 여부와 다른 사람을 채용할 때의 기준을 근거로 사회적 신뢰를 Ⅰ(특수화된 신뢰), Ⅱ(연고중심 신뢰), Ⅲ(능력중심 신뢰), Ⅳ(일반화된 신뢰) 등의 4 개 유형으로 분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2003 년 EAB survey in Korea 의 자료를 활용하여 신뢰 유형과 소득 간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이 표는 한국사회의 신뢰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소득에 상관없이 능력중심 신뢰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 신뢰 수준은 낮지만 채용과 같은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능력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일반화된 신뢰는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소득 상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이 유형의 신뢰를 많이 보여주었다. 셋째, 일반적 신뢰수준이 낮고, 연고 관계를 중시하는 연고중심 신뢰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었다.

제시문 (4)는 Chong-Min Park and Doh Chul Shin 의 논문 "Social Capital and Democratic Citizenship"의 일부를 발췌하여 출제의도에 맞게 적절하게 편집·정리한 것이다.

Ⅲ. 논제 해설

2008 학년도 고려대학교 정시 논술시험에서는 고등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비추어 무리가 없는 주제 및 제시문을 선택하는데 유의하였으며, 통합교과적 논술의 성격에 맞도록 인문학적 접근과 사회과학적 측면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주제와 제시문들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학과 사회과학의 만남, 통계적 수치의 해독 등을 통해 통합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는 점은 2007 년 4 월에 시행되었던 논술 모의시험이나 11 월의 수시 2 논술시험과 다르지 않다.

논제 Ⅰ에서는 제시문 (1)에 대한 요약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 (1)은 다른 제시문들에 비하여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조금 더 복잡한 편이다. 이러한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하고, 이를 구성하는 핵심 주제어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요약문을 한정된 분량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제 Ⅰ의 출제의도는 수험생의 독해능력 및 표현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있다.

논제 Ⅱ에서는 제시문 (2)의 논지를 밝히고 이와 대비하여 제시문 (3)을 해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 (2)는 앞의 제시문 해설에서 밝힌 것처럼 신뢰가 무엇인지를 정의한 후에, 불신이 생겨나는 이유와 불신의 사회적 결과를 설명하고, 또 불신 사회의 특징을 묘사한다. 이러한 제시문 (2)의 논지는 사회적 불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제시문 (3)에서 나타나는 세상에 대한 불신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제시문 (2)에서 설명되고 있는 사회적 불신과 제시문 (3)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불신은 구별되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불신의 원인과 양상, 불신에 대한 대응방법 및 탈출구 등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가 보이기 때문이다.

논제 Ⅲ은 제시문 (2)의 논지에서 확인되는 '사회적 불신'을 제시문 (3)의 시에 대한 접근의 출발점으로 삼되, 두 제시문의 대비를 통하여 불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시의 해설을 쓰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논제 Ⅲ은 수험생들의 논리적 사고 능력 및 통계적 자료의 해석 능력을 측정한 뒤, 제시문을 참조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논제 Ⅲ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는 구체적으로는 " 제시문 (4)의 〈표 2〉에서 유형 Ⅰ과 유형 Ⅳ의 특징을 각각 설명하고, 두 유형 간의 차이에 내포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제시문들을 참조하여 한국 사회의 불신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술"하는 것이다.

첫 번째 요구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시문 (4)를 꼼꼼하게 읽고, 신뢰유형 Ⅰ과 Ⅳ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각 유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또 상이한 성격을 가진 유형 Ⅰ과 Ⅳ를 비교하여 한국사회의 신뢰 구조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논제 Ⅲ의 두 번째 지침에 따른 논술은 제시문들을 유연하게 참조하여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신 문제를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야 한다.

Ⅳ. 평가기준

수험생들의 독해능력과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논술시험에서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에서는 통합적 측면을 위하여 제시문들을 함께 묶어서 제시하되, 논제를 개별화하여 구체적인 항목마다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있다.

논술의 성격상 특정한 정답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논술문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답이 없다고 해서 오답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특히 유의할 경우에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요구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신 없는 부분이라고 빼놓고 답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답안 전체의 평가가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둘째, 논제에서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고, 그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주어야 한다. 논제에서 요약을 요구하는 경우와 해설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설명이나 논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각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고, 논리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투적인 견해나 예를 드는 것보다는 주어진 제시문 및 논제의 이해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제시문을 참고하되, 제시문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다시피 해서는 안 된다. 제시문의 내용이 갖는 의미를 이해한 후 이를 자신의 표현으로 정리하여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분량 등 글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